



국정기획자문위-공정위 간담회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삼락농정 장터 22~23일 개장

전북도청 다목적광장

전북도는 농협전북지역본부와 함께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제5회 '전북 삼락농정 장터'를 전북도청 다목적광장(행사마당)에서 운영한다.

이번 '삼락농정 장터'는 20개 부스에 4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도내 마을상품, 6차산업 인증품 및 신선 농산물 등을 유통하게

이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시중가보다 10~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전북 삼락농정 장터'는 흑서기(7~8월) 기간 동안 휴장한 후 9~10월 들깨주, 넷째주 목~금에 정례적으로(총9회, 20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농 우수 농특산물 및 마을 상품 등의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성 기자

도, 수산자원 기반조성 74억 투자

인공어초 설치·연안바다목장 조성·바다숲 조성 등... 어초사업 경제 효과 2.6~3.7배

전북도는 수산자원 보호 및 번식을 통한 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총 7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7년도 수산자원 기반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어초 설치(32억원), △어초어장 관리(1억원), △군산 연안바다목장 조성(10억원), △바다숲 조성(6억원) 및 △수산종묘 방류(25억원) 등이다. 인공어초는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1974년부터 시작, 작년까지 적지면적의 49.8%인 1만 6,747ha를 설치했다. 올해는 군산과 부안 2개 해역 16단지, 128ha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3

월에 어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어초의 종류와 설치수역 등을 결정, 현재 제작장을 확보해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다. 적지면적 33,628ha(군산 2만1,503ha, 부안 1만2,135ha), 시설면적 1만 6,747ha(군산 1만 683ha, 부안 6,064ha), 어초종류는 팔각별강제어초, 팔각반구형소형강제어초, 삼단격실형강제어초, 팔각반구형중형강제어초다. 어초어장관리는 인공어초 설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초의 시설상태, 어장 주변 폐기물 수거, 어획 및 부착생물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어초어장 22,011ha를 관리하여 폐기물 158

톤을 수거한 바 있다. 군산 연안바다목장 조성은 군산 옥도면 해역 480ha에 5년간(2014~2018) 50억원을 투자, 현재까지 254ha에 인공어초 338기(어류형8, 패조류형330)와 자연석 8,601㎡시설, 이번 년도에 96ha에 인공어초 47기(어류형) 및 설치된 인공어초 수역에 우렁종묘(약 100만마리)를 방류한다. 또한, 해조류 확대 조성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군산 옥도면 해역에 바다숲(갈피, 모자반 등) 17ha를 조성하고 있다. 자원남획 및 기후변화 등으로 감소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고 건강한 수산생물을 방류, 어업

생산력 증대를 위하여 7개 시·군(군산, 정읍, 진안, 임실, 고창, 부안)에서 바닷고기인 광어, 해삼, 우럭과 민물고기인 뱀장어, 붕어 등 786만마리, 바지락 종패 62톤을 방류하고 있다. 도 강승구 농축수산물품질감장은 "한 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평가한 2016년도 서해안지역 어초사업 효과 분석에서 어초설치지역 어획량이 비설치 지역보다 약 3.6배 높고, 종묘방류 경제 효과 조사에서도 광어 2.6배, 감성돔 3.7배, 해삼 3.2배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다"며, "인공어초 설치, 바다 숲 등 수산자원조성 기반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주꾸미 35만 마리 무상방류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전라북도 연안 수산자원을 증강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주꾸미 35만 마리를 전라북도 연안해역에 무상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꾸미 방류를 위해 지난 5월 부안에서 건강한 주꾸미 어미 3,000마리를 구입, 수조에 인공 소라껍질을 넣어주고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산란 유도 과정을 거쳐 어린 주꾸미(1cm 이상) 35만 마리를 생산했다. 서해특산종인 주꾸미는 고소득 수

산자원이지만 서식 환경의 변화, 자원 남획 등으로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최근 정부에서 금어기 설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 품종으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방류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2003년부터 3년간 주꾸미 대량 종묘생산 시험 연구를 걸쳐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331만 6,000마리를 생산 방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 방류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상하수도 공사현장 일제점검

전북도는 도내 상하수도 주요시설과 공사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오는 7월 7일까지 실시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은 공사 추진실태 점검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상하수도 공사현장 40개소, 정수장 19개소, 1일 처리용량 500톤 이상 하수처리장 22개소다.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추진실태 점검과 안전시공을 위한 현장 주변 관

리 실태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발생 이전에 공사 마무리가 가능한 현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농어촌마을하수도 공사현장은 처리장 지반굴착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배수시설 정비 여부,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집중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2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30일까지 시군 확인점검에 나선다. /김진성 기자

“부영주택, 아파트 분양률 10배 뺨튀기 신고”

정동영 의원, “미분양 43.9% 신고·실제 분양률 4.1%... 근본 해법은 후분양제”

부영주택의 아파트 분양률 뺨튀기 신고 사실이 국토부와 청약시 확인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월 일반 분양분 4298가구 중 미분양 43.9%인 2408가구를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분양률은 4.1%로 177가구에 그쳐 10배 불풀러 신고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부풀린 분양률 신고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제대로 검증도 못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재벌건설사 위주의 정보비대칭으로 소

비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부영주택의 분양률 10배 뺨튀기는 주택시장을 교란시켜온 고질적 병폐”라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부의 집값대출 남발과 판매제한 완화(2014. 6) 조치 이후, 아파트분양과 분양권 유통 등 거래 등 비정상 거래를 허용해 인위적 과열을 부추겨 왔다. 이는 분양권 전매, 뺨다방 동원, 분양권 유통 등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고, 소비자의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해 거품을 조장 집

은 실수요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다. 건설사는 미분양시엔 브랜드까지 하락에 따른 추가 분양의 어려움,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기존 분양가구의 반발 등을 우려해 예상 분양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엔 신고 의무만 있지, 처벌 조항이 없어 거짓신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건설사가 정보를 속이고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쉽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서로 미룬 채 검증하지 않은 정보로 투기를 방조하고 소비자의 재산 손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처벌 조항이 필요”라며, 법 개정을 약속했다. 또 “미분양 발생 원인은 사업성 검토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미분양 되어도 소비자 피해만 있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80%이상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구매하는 후분양제를 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도 사업 타당성 없이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만큼 철저한 사업성에 기반 해 사업을 추진, 미분양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미국 ERA 수질분야 ‘우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국제수질평가기관인 미국 ERA가 주관하는 환경측정분야 국제 수질분야에 참가하여 수질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국제수질평가시험이란 미국 ERA(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가 측정분석기관의 능력을 국제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서 세계적인 분석기관들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분석능력과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평가한다. 연구원은 올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먹는물, 수질, 폐기물 3개 분야 45개 항목 평가에서 최우수분석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국제수질도평가에서도 수질분야 중금속 6개 항목(Cu, Pb, Cd, Cr, As, Mn)에 대해 최상위 성적으로 우수 판정을 받아, 명실공히 “국제적 수준의 우수 분석기관”으로서 인정받았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